

16. (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계절적 이미지를 통해 시적 상황을 형상화하고 있다.
- ② 화자의 공간 이동에 따른 정서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 ③ 수미상관의 방식을 통해 구조적 안정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④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통해 친밀감을 높이고 있다.
- ⑤ 영탄적 어조를 사용하여 자연물에 대한 경외감을 드러내고 있다.

(가)

선지	문학개념어	효과
①	계절적 이미지	시적 상황을 형상화
②	화자의 공간 이동	정서 변화를 나타냄
③	수미상관의 방식	구조적 안정감을 형성
④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	친밀감을 높임
⑤	영탄적 어조	자연물에 대한 경외감

(나)

선지	문학개념어	효과
①	계절적 이미지	시적 상황을 형상화
②	화자의 공간 이동	정서 변화를 나타냄
③	수미상관의 방식	구조적 안정감을 형성
④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	친밀감을 높임
⑤	영탄적 어조	자연물에 대한 경외감

17.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신석정은 지조를 지키는 삶을 중시했던 작가이다. 이 작품에서 화자는 무료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가 문득 깨달음을 얻어 지조를 지키며 살아가려는 다짐을 보이고 있다. 이 작품에 인용된 낙지론의 말미에는 ‘豈羨夫入帝王之門哉(어찌 제왕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부러워하겠는가)’라는 부분이 있다. 이를 통해 화자는 세속적 부귀영화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가난하지만 지조를 지키겠다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화자의 태도는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잘 형상화되고 있다.

- ① ‘좁은 서실’은 무료한 일상의 공간이자 깨달음을 얻게 되는 공간이다.
- ② ‘그렇다!’라는 독백은 화자가 지향하는 삶에 대한 다짐으로 이어지고 있다.
- ③ ‘쫓들리고 / 웅숭거릴지언정’은 화자가 벗어나려는 가난을 감각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 ④ ‘제왕의 문’은 화자가 부정하는 세속의 부귀영화를 의미한다.
- ⑤ ‘대바람 타고 / 들려오는 / 거문고 소리’는 화자가 지향하는 삶을 환기하는 청각적 이미지이다.

선지 1번, 화자는 좁은 서실(書室)을 / 무료히 거닐다 / 앉았다, 누웠다 / 잠들다 깨어 보면 // 그저 그런 날을 / 눈에 들어오는 / 병풍의 낙지론(樂志論)을 / 읽어도 보고……하면서 무료한 일상을 보내다가, '그렇다! / 아 무리 쫓들리고 / 웅숭거릴지언정 / — '어찌 제왕의 문에 똥을 부러워하라라면서 자신의 지조를 지키겠다는 깨달음을 얻게 된다.

선지 2번, 선지 1번의 연장선에 있다. 즉, 자신이 얻은 깨달음을 '그렇다!'라는 영탄적 표현을 통해 표현한다. 그리고 자신의 지향하는 삶에 대해 말하고 있다.

선지 3번, 선지 1번의 연장선에 있다. 해당 부분의 해석에 대해 보기는 '화자는 세속적 부귀영화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가난하지만 지조를 지키겠다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고 말하기 때문에, 화자는 가난에서 벗어나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선지 4번, 결국 가난하지만 지조를 지키는 태도를 지키겠다고 말한다. 보기에서는 '豈羨夫入帝王之門哉(어찌 제왕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부러워하겠는가)'라는 부분이 있다. 이를 통해 화자는 세속적 부귀영화에 대한 미련을 버린다고 설명하며, 결국 제왕의 문은 세속적 부귀영화와 대응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선지 5번, 화자는 세속적 부귀영화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가난하지만 지조를 지키겠다는 다짐을 한 이후 '대바람 타고 / 들려오는 / 거문고 소리가 들리는 것이다. 그리고 첫 행에서 '대바람 소리 / 들리더니 / 소소한 대바람 소리가 들린 점을 고려하면, 다짐한 이후 소리가 달라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다짐한 이후 달라진 화자의 태도를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 형상화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18. (나)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봄산'은 '솔이파리'와 '상수리나무 묵은 잎'처럼 '나'를 버릴 수 있는 공간이겠군.
- ② '삶의 근심과 고단함에서 돌아와'로 미루어 볼 때, 화자는 과거에 힘겨운 일을 겪었을 수 있겠군.
- ③ '거기 이는 바람'과 '찬 서리'는 '저 수 많은 새 잎사귀들'의 생명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화자가 경계하는 대상이겠군.
- ④ '지나온 날들처럼 / 남은 생도 벅차리'에서 과거를 수용하면서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는 화자의 심리를 엿볼 수 있겠군.
- ⑤ '무엇을 내 마음 가장자리에 잡아' 둘 필요가 없다는 것은 집착에서 벗어나려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낸다고 할 수 있겠군.

선지 1번, '나도 봄산에서는 / 나를 버릴 수 있으리 / 솔이파리들이 가만히 이 세상에 내리고 / 상수리나무 묵은 잎은 저만큼 지네에서 나를 버리는 것을 솔이파리와 상수리나무 묵은 잎이 떨어지는 것을 통해 형상화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선지 2번, 특정 공간에서 돌아왔다는 것은 과거에 특정 공간에 있었다로 설명할 수 있다. 결국, '삶의 근심과 고단함에서 돌아와'로 미루어 볼 때, 화자는 과거에 힘겨운 일을 겪었다고 해석해도 문제가 없다.

선지 3번, 선지 1번의 연장선에 있다. '나는 솔이파리와 상수리나무 묵은 잎이 떨어지는 것에 동질감을 느끼고 있다. 그런데 솔이파리와 상수리나무 묵은 잎이 떨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이는 바람이며 / 찬 서리 내린 실가지 끝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즉, 바람과 찬 서리로 인해 솔이파리와 상수리나무 묵은 잎이 떨어지는 것이다. 저 수 많은 새 잎사귀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원인을 바람과 찬 서리로 지목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이파리들과 동질감을 느끼는 '나는' 바람과 찬 서리를 경계할 수밖에 없다.

선지 4번, '지나온 날들처럼 / 남은 생도 벅차리'에서 나는 남은 생이 벅차다고 예상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없다.

선지 5번, 나를 버리는 '나는' 지난날들을 가만히 내려놓아도 좋으며, 봄이 오는 이 숲에서 / 무엇을 내 손에 쥐고 / 무엇을 내 마음 가장자리에 잡아두리라고 말하며 모든 것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려한다.